

# 불자들이 수행은 외면, 자성과 쇄신 결사에는 무관심

##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의 기초분석 결과를 11월 1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6~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자들은 수행활동도 미흡하고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자들이 외면한 템플스테이·5대 결사

한국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꼽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응답자가 44.7%에 달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템플스테이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도 33.6%가 '들어보기는 했다' 수준이며 17.8%가 '약간 아는 편이다' 3.9%만이 '매우 잘 안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개신교(25.5%)와 무교(28.2%)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자들 중에서도 매우 잘 안다(9.1%)보다는 '들어보기는 했다'(34.9%)와 '약간 아는 편이다'(26.3%)는 응답이 많았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불자들 중 39.9%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종종교에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은 가톨릭 2.3%, 개신교 2.2%, 무종교 4.8%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 불자들은 템플스테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자들 중 50.9%가 '템플

스테이'가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 및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34.6%에 달했다. 종교별 부정적 의견은 개신교 36.9%, 무종교 27.9%, 가톨릭 22.1%, 불교 15.8% 순으로 개신교인의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75.5%가 모른다고 밝혔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알고는 있다', '약간 잘 안다' 수준에 머물렀다. 불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9.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종종교인 중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은 무종교 56.1%보다 높았다. 가톨릭 66.3%, 개신교 58.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불자들은 또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에 대해 대다수인 56.2%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25.5%에 그쳤다. 참여와 지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불자들 중 50.7%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답했다.

대북지원 중단요구 이웃종교보다 높아 응답자 대다수는 최근 종교계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24.3%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주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46.6%의 응답자는 '남한의 요구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2.2%만이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불자들은 47.4%가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26.3%로 조사됐다. 지원 중단요구한 가톨릭(15.1%)이나 개신교(19.7%) 신자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준이다. 무교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7.4%로 불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불자들은 또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웃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61.6%, 개신교 64.6%, 무교 61.3%가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는 55.4%만이 개선 방안이 필요하

다 밝혔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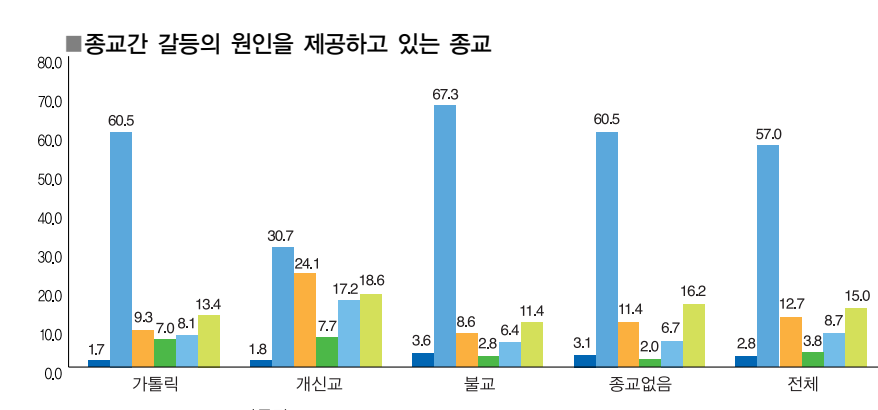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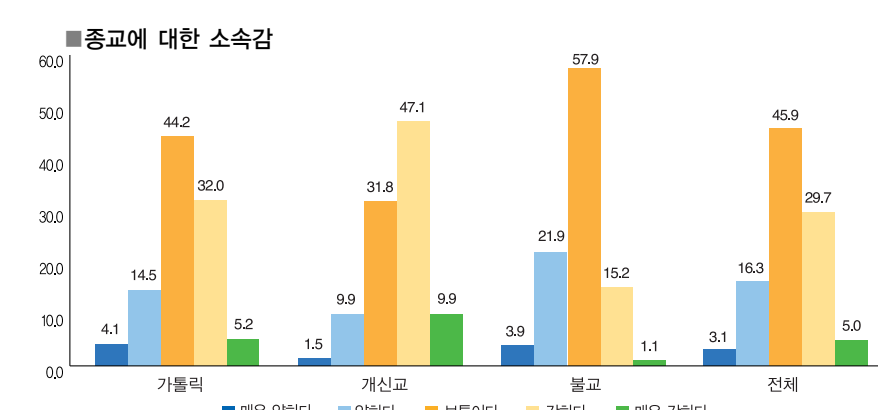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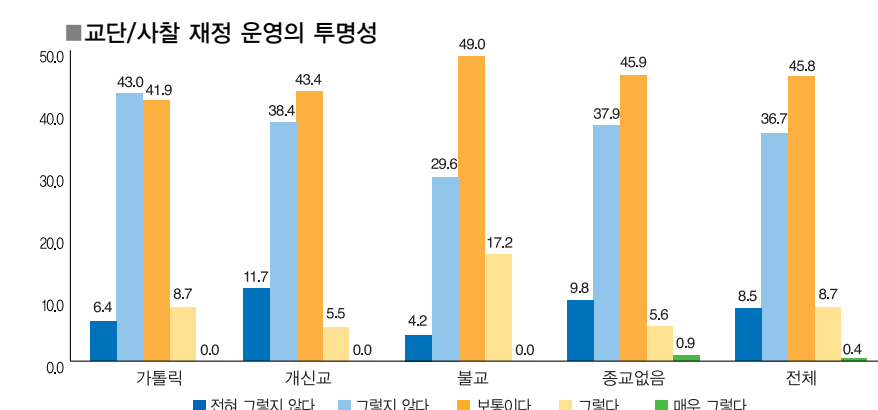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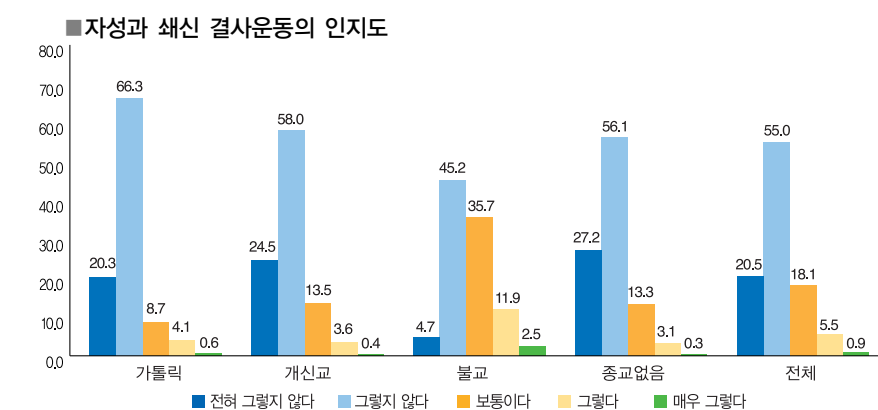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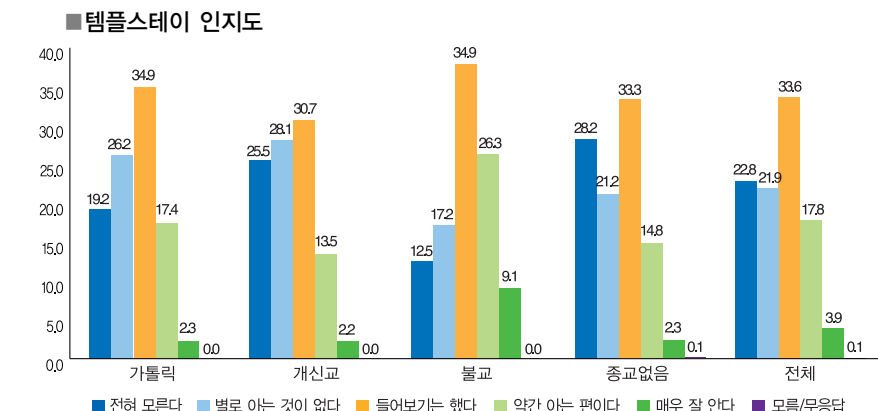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불교사회연구소 1512명 대상 조사

#### 템플스테이 매우 잘 안다 '9.1%'

#### 5대 결사 '약간 필요' 56.2%

### 불자들 수행활동 대부분 '적당히'

#### 경전은 거의 읽지 않거나 행사 때만

#### 미약한 활동 결국 소속감 약화시켜

## “결사, 결국에는 사회에 영향 미칠 것”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

조계종 집행부와 종단 출입기자단의 간담회가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들은 불자들이 자성과 쇄신 결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난 불교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

불교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사진)은 “결사가 우물만 개구리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변화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 중이다. 하루 아침에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사추진본부도 결성됐으니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만 스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사 추진에 있어 지방 사찰들의 관심이 떨어지며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자단은 결사를 통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결사가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님은 “결사를 제안하면서 계층별 대중공사와 공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하나씩 진행 중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사추진본부에서 계층별, 단계별 일정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종단의 활동이 10점 만점에 낙제를 겨우 면한 6.5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종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결사는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더디더라도 변화를 이어가야 한다. 언젠가는 밖으로 흘러 넘쳐서 종단의 결사가 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스테이가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 및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34.6%에 달했다. 종교별 부정적 의견은 개신교 36.9%, 무종교 27.9%, 가톨릭 22.1%, 불교 15.8% 순으로 개신교인의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75.5%가 모른다고 밝혔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알고는 있다', '약간 잘 안다' 수준에 머물렀다. 불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9.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종종교인 중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은 무종교 56.1%보다 높았다. 가톨릭 66.3%, 개신교 58.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불자들은 또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에 대해 대다수인 56.2%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25.5%에 그쳤다. 참여와 지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불자들 중 50.7%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답했다.

대북지원 중단요구 이웃종교보다 높아 응답자 대다수는 최근 종교계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24.3%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주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46.6%의 응답자는 '남한의 요구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2.2%만이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불자들은 47.4%가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26.3%로 조사됐다. 지원 중단요구한 가톨릭(15.1%)이나 개신교(19.7%) 신자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준이다. 무교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7.4%로 불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불자들은 또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웃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61.6%, 개신교 64.6%, 무교 61.3%가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는 55.4%만이 개선 방안이 필요하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 원인 개신교 탓 57%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45%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불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이웃종교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불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복지후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공정·평등 인권존중 민주주의 순이었다.

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인권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복지후생 경제성장 공정·평등 생명존중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신교인들은 공정·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복지후생 경제성장 인권존중 생명존중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